

2023년 보험산업 전망

김 세 중(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22.10.6.



목 차

I. 경제·금융 환경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III.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I

경제·금융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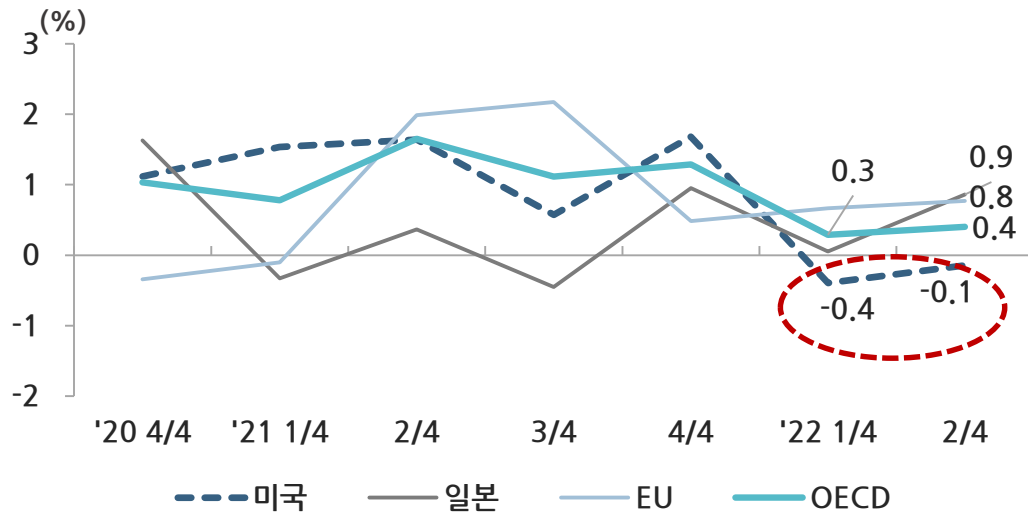
- 1. 세계경제
- 2. 국내경제
- 3. 금융시장

- 4. 2023년 국내경제 전망
- 5. 경기변화와 보험산업

1. 세계경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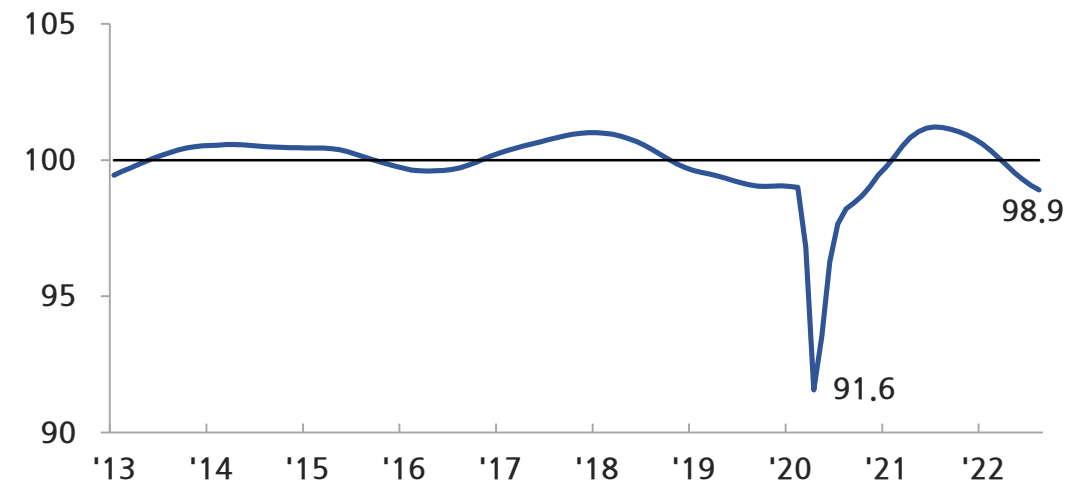
- OECD 전체를 비롯한 미국, 유럽지역 경제성장세는 2022년 들어 둔화
 - 2022년 1/4분기와 2/4분기 OECD 전체 경제 성장률은 각각 0.3%, 0.4%로 1%를 하회
 -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로 경기둔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남
- OECD 경기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하회하면서 향후 경기전망이 부정적임을 시사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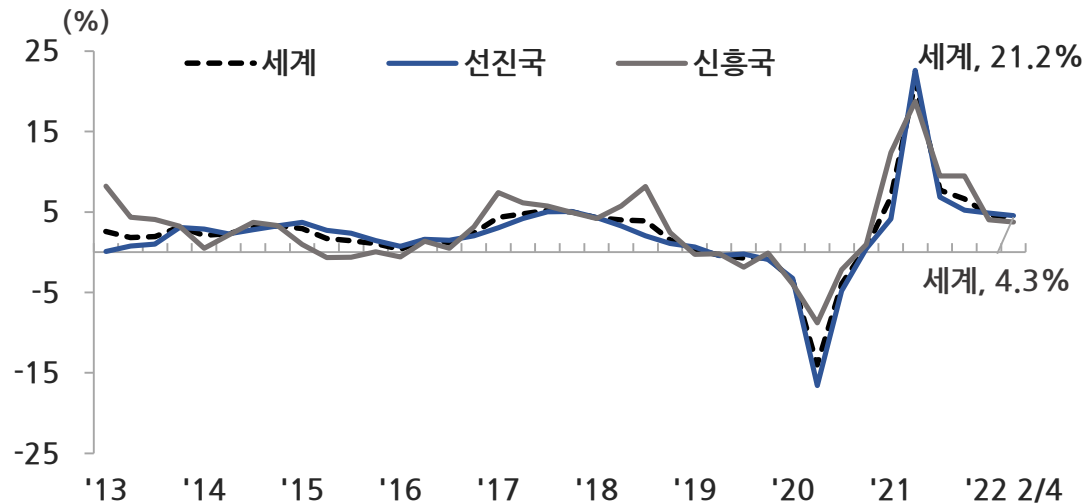


자료: OECD

1. 세계경제: 무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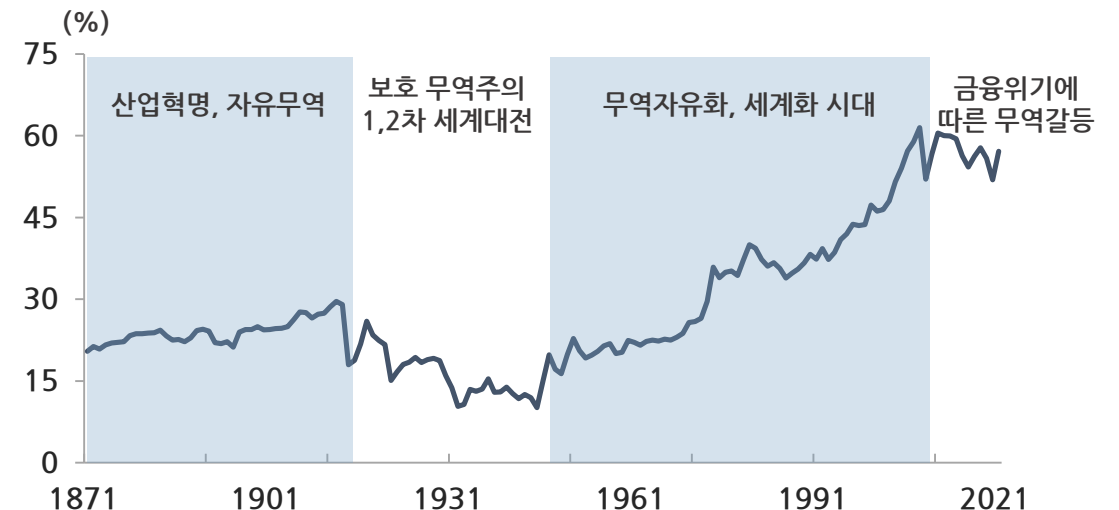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세계 무역규모는 2022년에도 양호한 성장세
-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무역규모 성장 둔화 가능성 우려
- 글로벌 GDP 대비 무역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갈등으로 하락추세 전환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경우 GDP 대비 무역규모 감소 가속화로 세계경제 성장에 악영향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글로벌 GDP 대비 무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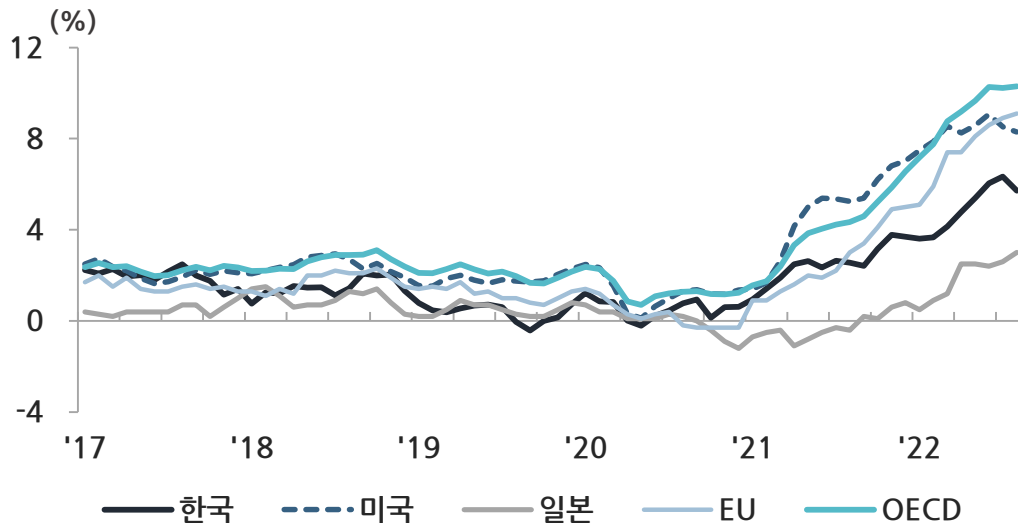


주: Global trade openness index
= (세계수출+세계수입)/글로벌 GDP*100
자료: Our World in Data; World Bank

1. 세계경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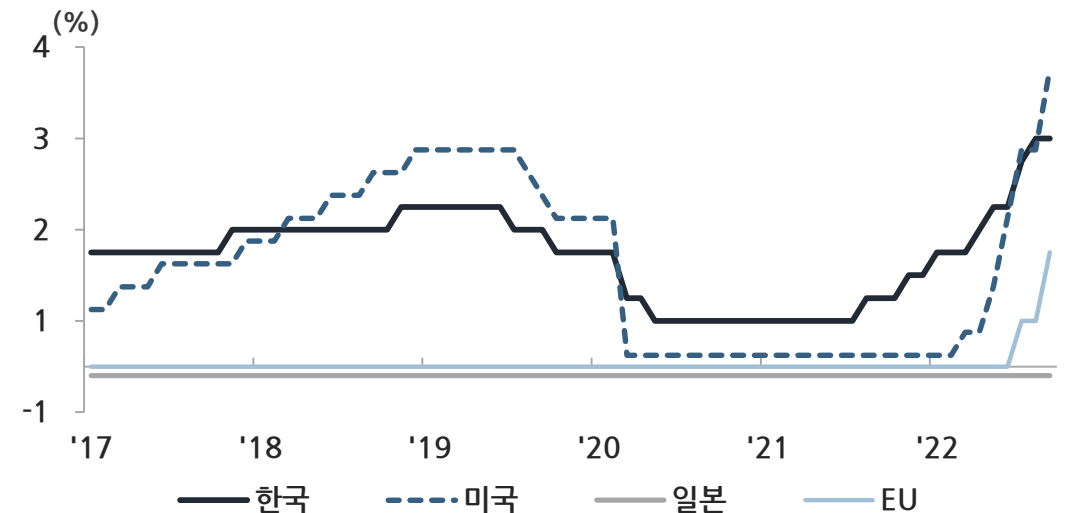
- 2021년 이후 OECD 전체를 비롯한 미국, 유럽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급등세
-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 중이나, 인플레이션 지속
 - 2022년 8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8.3% 상승
- 한편 유럽과 일본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소극적이며, 이는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음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OECD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민간기관들은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2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측
 - IMF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경기둔화가 클 것으로 예상,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 OECD는 2023년 미국 경제성장률 0%대 전망,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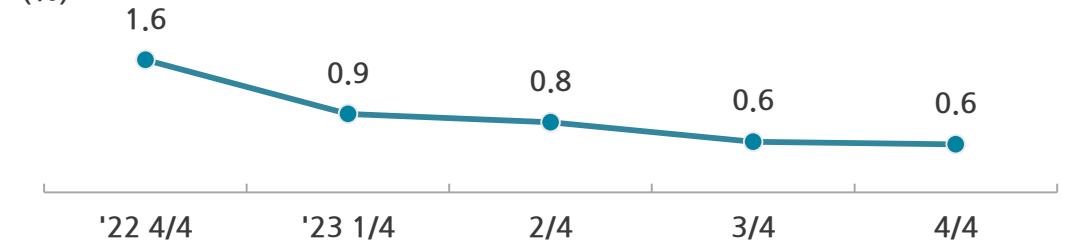
(%)

구분	전망시점	2022	2023
IMF	2022.7	3.2	2.9
- 선진국		2.5	1.4
- 신흥국		3.6	3.9
OECD	2022.6	3.0	2.8
Global Insight	2022.7	2.7	2.6
6개 IB 평균	2022.7	2.9	2.7

자료: 한국은행(2022. 8), 『경제전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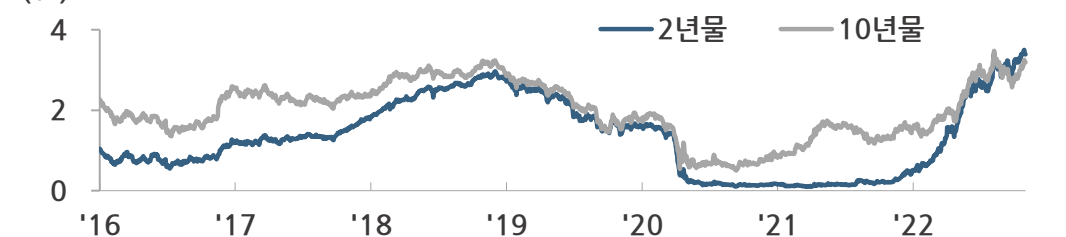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장단기 금리추이

(%)



자료: OECD(2022. 6), Economic Outlook, no.111

(%)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성장률과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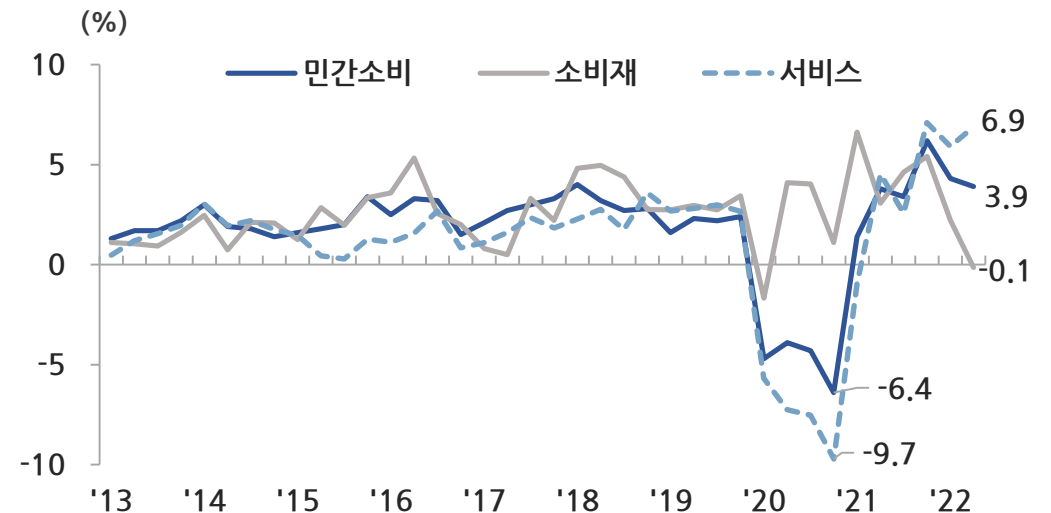
- 세계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경제성장세가 둔화 추세
-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 및 야외활동 등 서비스 소비 증가세로 양호한 증가
- 그러나 재화소비는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세가 진정되고, 서비스 소비 대체효과로 부진
 - 한편, 부동산 및 금융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 자산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민간소비는 악화 예상

분기별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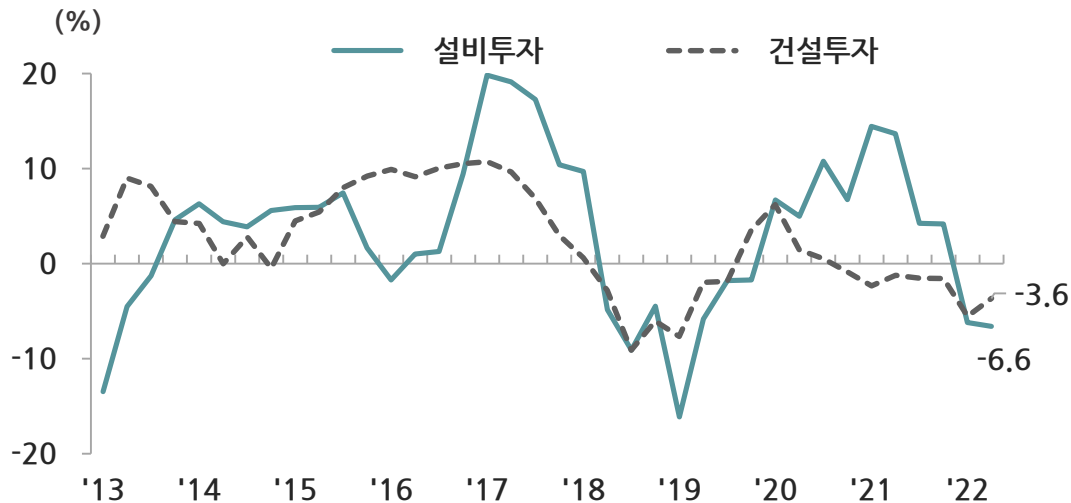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2. 국내경제: 투자 및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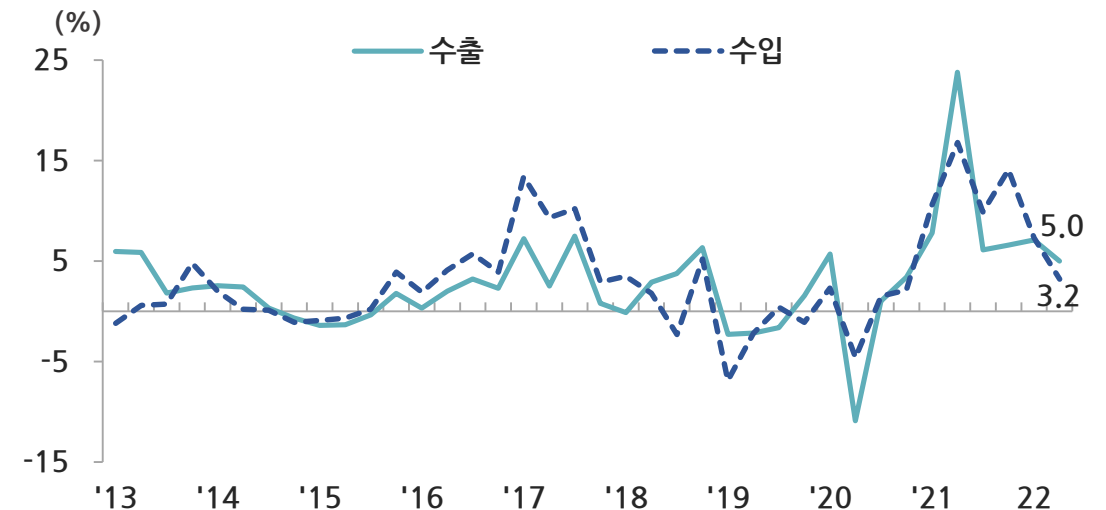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202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 수출규모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규모 회복과 함께 양호한 모습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재화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 인플레이션과 금리

-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크게 상승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지만 2000년대 들어 최고치 기록 중
 - 인플레이션은 보험계약의 실질가치 감소, 보험금 청구액 증가, 판관비 증가 등으로 보험산업에 영향
-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단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

한국·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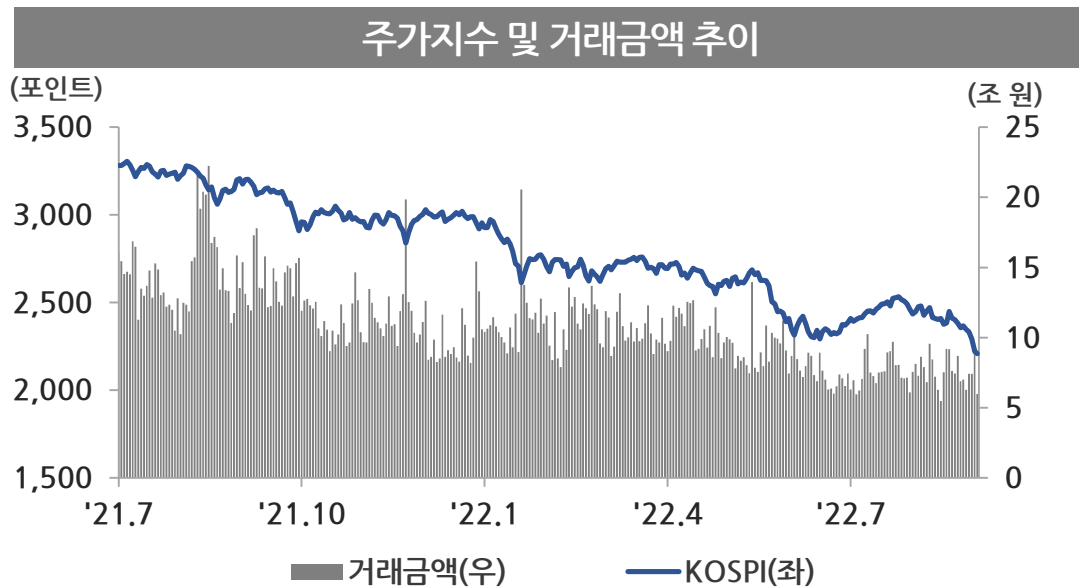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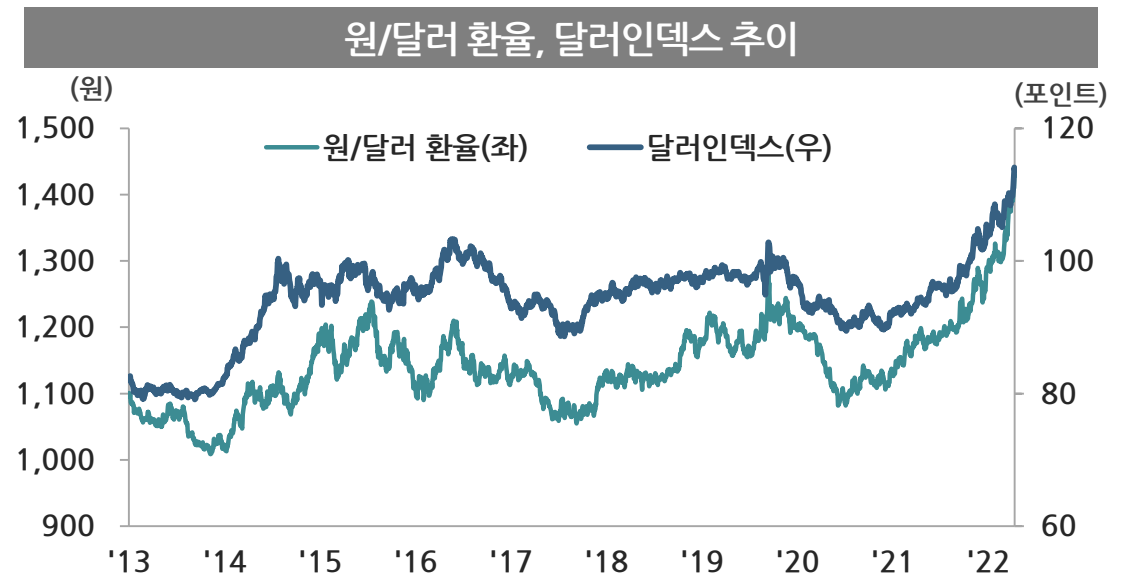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3. 금융시장: 주가지수와 환율

- 2021년 중반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주가지수는 지속 하락
- 원/달러 환율 또한 1,40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안 지속
- 환율 상승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의 영향이 크며, 달러의 지속적 강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전이, 타 국가의 금리 인상, 경기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Bloomberg

4. 2023년 국내경제 전망

- 한국은행과 KDI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각각 2.1%,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OECD와 IMF 또한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1%로 낮게 제시
- 설비투자과 건설투자는 2023년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민간소비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증가세 큰 폭 둔화, 주요국 경기둔화로 수출, 수입 성장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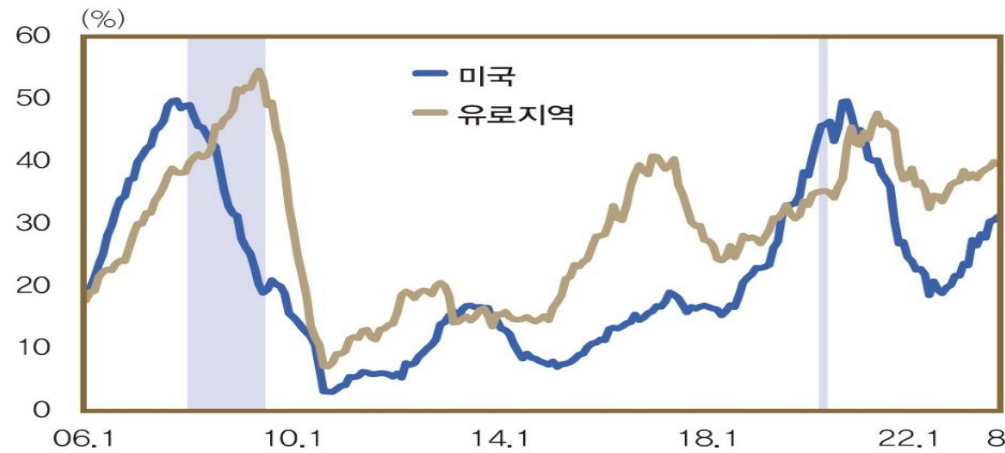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기관 2023년 경제전망								
구분	2022				2023			
	한국은행	KDI	OECD	IMF	한국은행	KDI	OECD	IMF
국내총생산	2.6	2.8	2.8	2.3	2.1	2.3	2.2	2.1
민간소비	4.0	3.7	3.7	—	2.6	3.9	2.4	—
설비투자	-3.8	-4.0	—	—	0.9	2.4	—	—
건설투자	-1.5	-1.3	—	—	2.2	2.3	—	—
상품수출	3.2	4.3	—	—	1.6	2.5	—	—
상품수입	2.9	4.2	—	—	2.1	2.8	—	—

자료: 한국은행(22. 8); KDI(22. 5); OECD(22. 9); IMF(22. 7)

5. 경기변화와 보험산업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2023년 국내경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들어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확률은 증가
 - 특히 러시아의 유럽 내 가스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럽 경제성장률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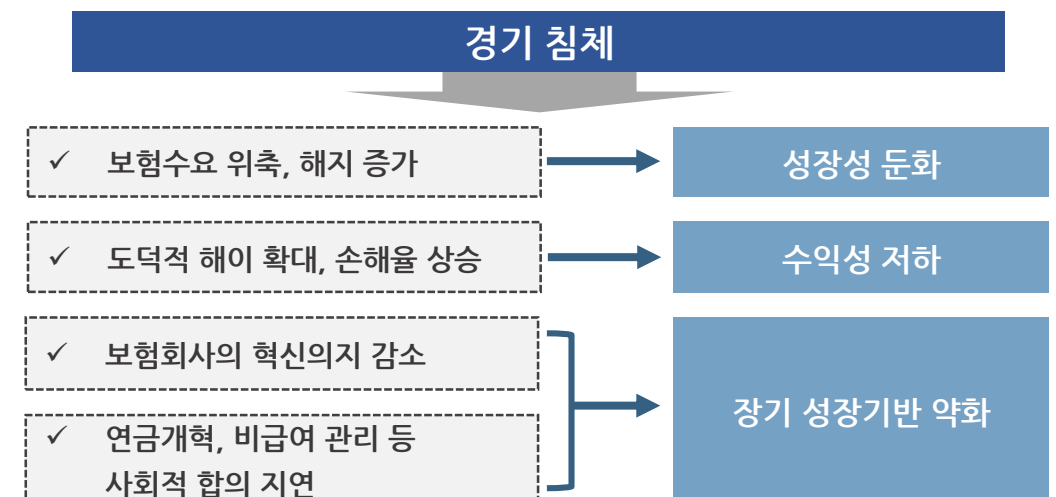
미국과 유로지역 경기침체 확률



주: 1) 미국은 FRB NY 등의 권고를 따라 국채 10년물-3개월물 사용,
 유로지역은 ECB에서 제공하는 국채 10년물-1년물 사용(12개월 선행)함
 2) 음영은 NBER 기준 미국의 경기침체기임
 3) 12개월 이동평균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2022),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경기침체 시 보험산업 영향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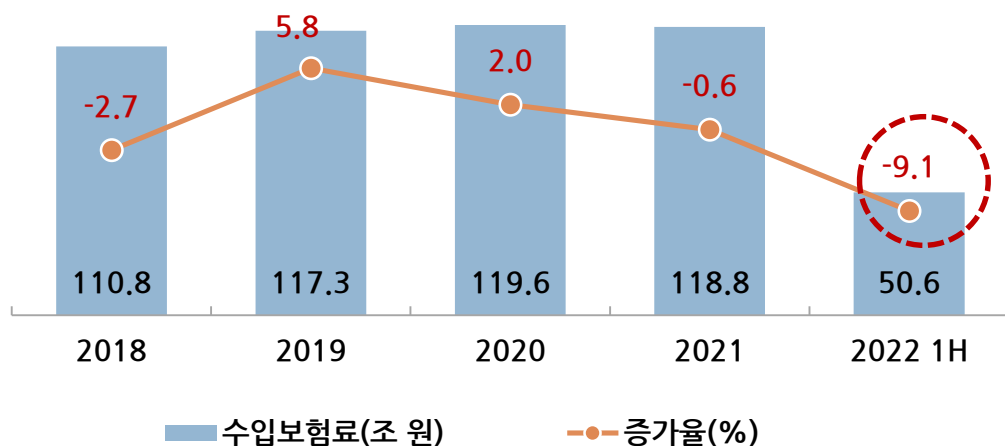
1. 2022년 상반기 성장성
2. 생명보험 장기 성장성 진단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1. 2022년 상반기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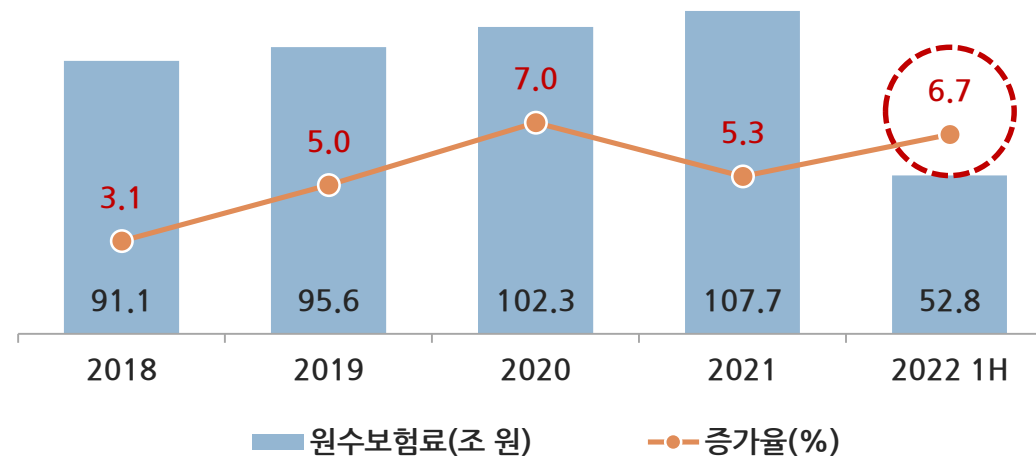
- 금리 상승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 성장성에 부정적 충격
 -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1%로 대폭 감소
- 실물경기 둔화 본격화 이전으로 손해보험은 2022년 상반기 6.7%로 양호한 성장 지속
 -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4.5%로 평균 수준의 성장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생명보험 장기 성장성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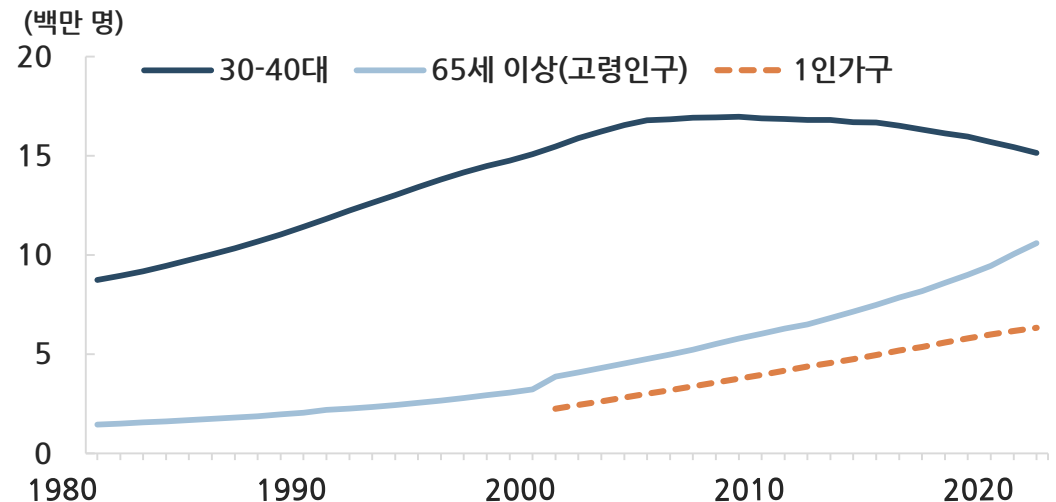
- 2015년 이후 8년간 생명보험은 네 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0~40대 인구 감소, 65세 이상 인구 증가,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으로 개인보험 성장은 구조적 한계
- 생명보험 산업의 저성장 장기화는 불가피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0~40대 인구/ 6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추이



주: 1인 가구 통계는 2000년 수치부터 공표됨
자료: 통계청

3.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 저축보험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큰 폭 상승으로 상대적 금리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수입보험료 대폭 감소,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큰 폭 감소
- 연금보험도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 보장성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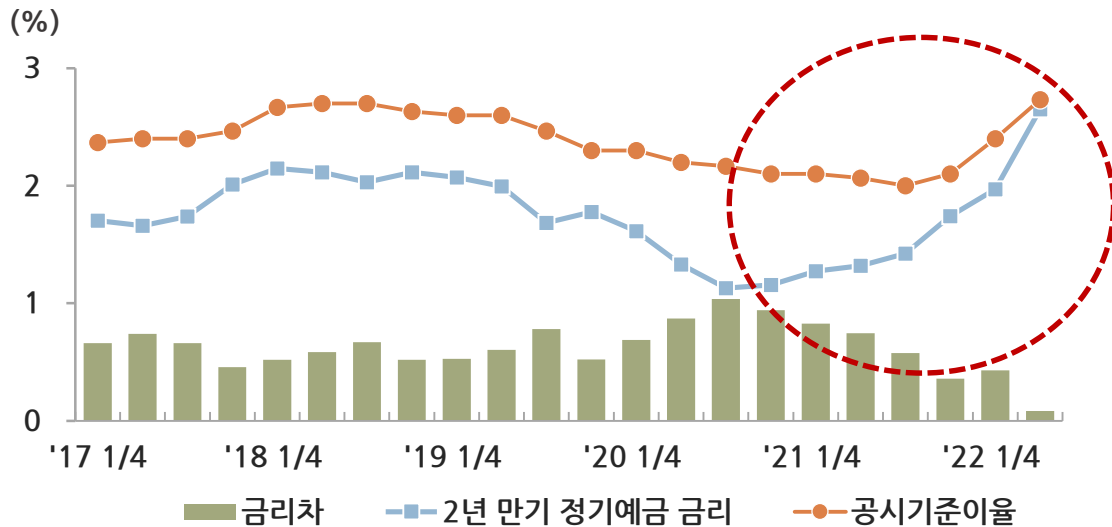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보장성	3.2	2.5	-7.3	1.2	1.9	2.7
저축	-0.1	1.1	-29.3	-32.7	-31.6	-28.2
연금	12.7	-1.8	-4.7	-4.2	-9.8	-1.9
변액	15.2	6.3	-0.3	-4.1	-28.1	-24.6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3-1. 저축보험과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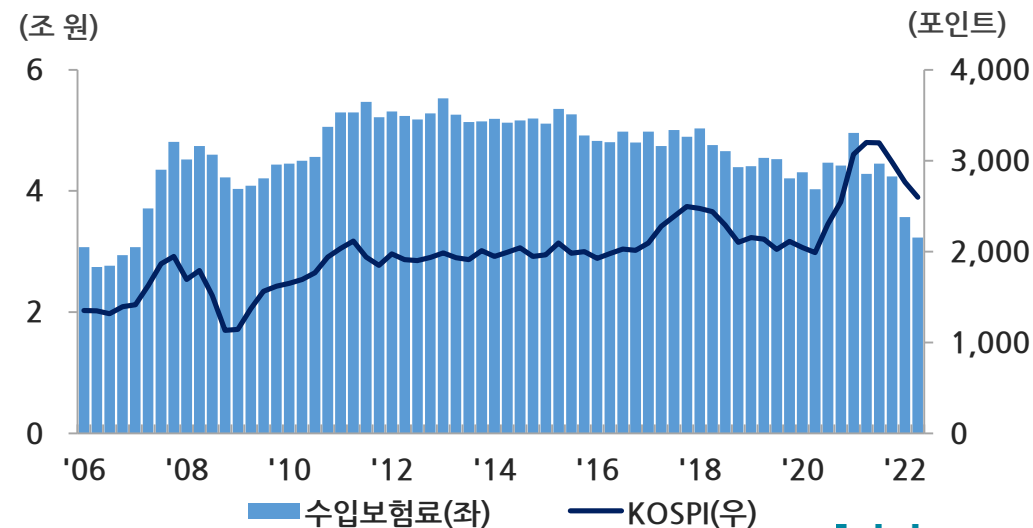
- 저축보험은 방카 채널 의존도가 높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 상품과 대체관계가 강함
 - 최근에는 공시기준이율과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축소, 이에 따라 저축보험은 금리경쟁력을 상실
 - 자산운용 효율성을 위한 자산규모 확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보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
- 최근 주가지수 하락으로 인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급감
 - 코로나19 시기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투자 선호도 확대, 시장회복에 대비하여 변액보험 경쟁력 확보 필요

정기예금 금리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보험개발원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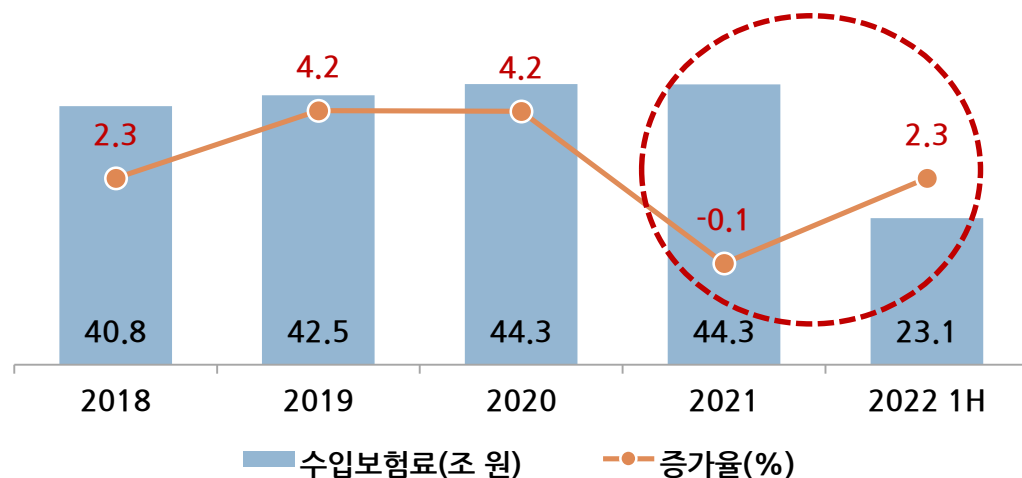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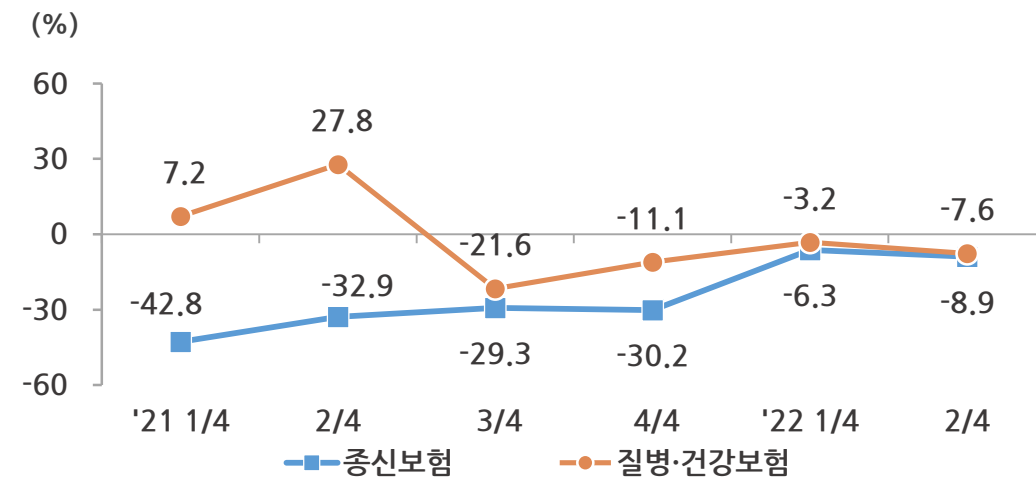
3-2.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 위축과 경기둔화로 보장성보험 성장성은 둔화
 -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은 2015년 이후 종신보험 신상품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 연금전환 종신보험, 무해지·저해지 종신보험 등 보장기능과 노후소득 및 저축 기능을 혼합한 상품전략
 - 그러나 상품 복잡성 증가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조치 또한 증가
- 2021년 하반기 이후 종신보험과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지속적 감소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종신 및 질병·건강보험 초회보험료 증가율



3-3. 연금보험

- 연금보험(세제적격 및 비적격 연금)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공적연금 개혁 문제의 대두와 이로 인한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 본격화로, 생명보험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
- 정책적으로는 수수료 및 세제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에 나설 필요

보험산업 연금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
	(연금보험 분류방식 변경) 연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
전략적 대응방안	(저축형 및 투자형 상품의 균형) 저축형과 투자형 상품 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
	(연금가입 목적별 연금상품 공급)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 확대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의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 극대화
	(수익률 개선 및 리스크 관리)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 개선

자료 : 김세중,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보험연구원

4.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
- 하지만 개인보험에 속하는 장기 보장성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성장세는 소폭 약화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보험 중심이나 경기둔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고성장세
 -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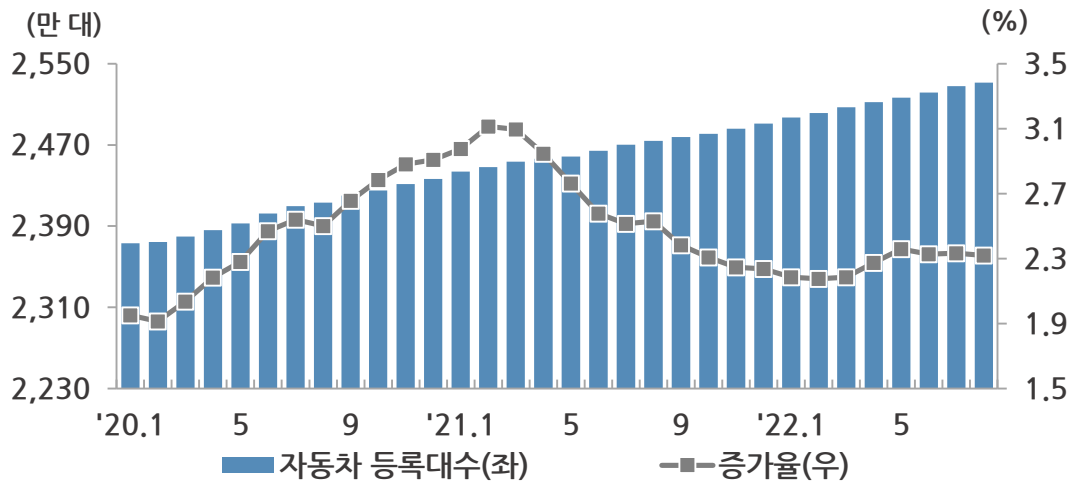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						
구분	'21 1/4	2/4	3/4	4/4	'22 1/4	2/4
장기보장	6.0	6.7	6.8	6.6	6.5	6.2
장기저축	-8.9	-17.7	-17.3	-22.6	-17.4	-24.4
자동차	6.3	3.8	1.4	3.7	3.0	3.0
일반손해	8.5	10.3	7.8	8.3	6.7	10.2

주: 1) 장기저축에는 개인연금이 포함됨
 2)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1.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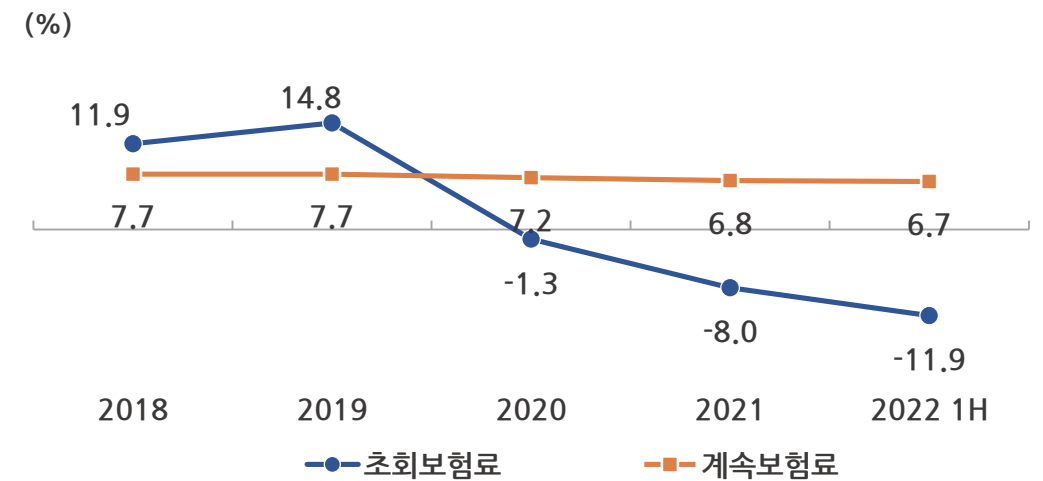
- 2020~2021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고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
 - 보험료 인하 조치,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장기보장성보험은 2020년 이후 신규가입이 정체되면서 계속보험료 및 갱신보험료 위주 성장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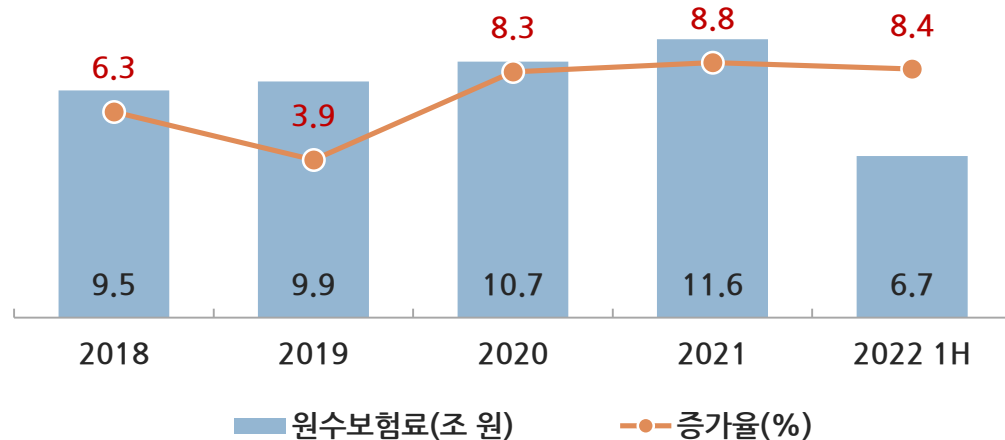


주: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2. 일반손해보험

-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이후 8%대의 고성장을 지속
 - 과거 기업성보험 위주의 일반손해보험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최근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 종목별로 보면 화재보험이 기저효과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선박수주와 수출입 물동량 증가, 책임보험 시장 확대로 해상보험 및 특종보험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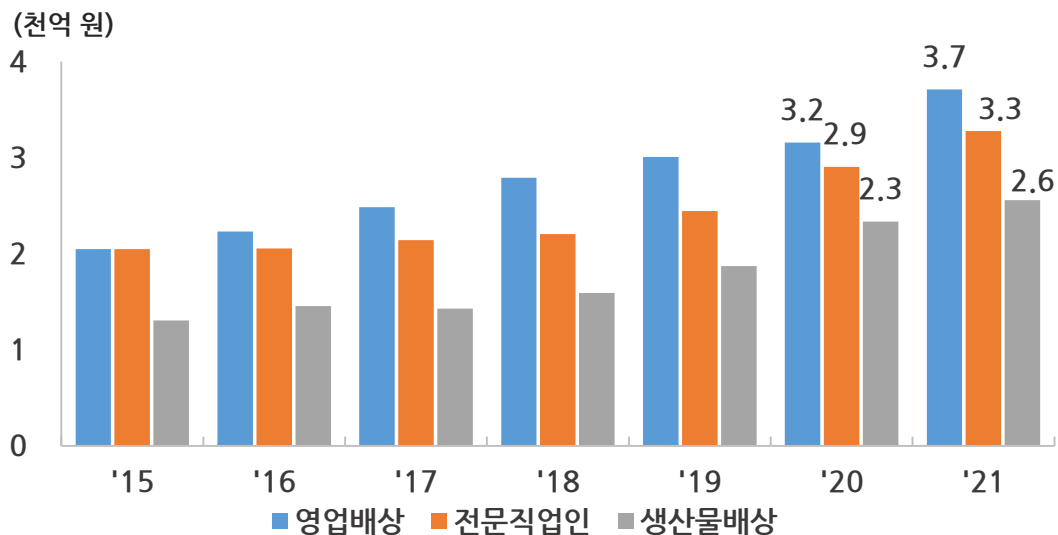
구분	증가율 (%)				
	'21 2/4	3/4	4/4	'22 1/4	2/4
화재	18.3	19.8	13.1	1.8	0.1
해상	-4.4	16.8	25.4	7.6	28.4
보증	6.0	-2.4	-5.4	3.0	1.0
특종	13.0	8.6	8.7	7.0	8.7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3.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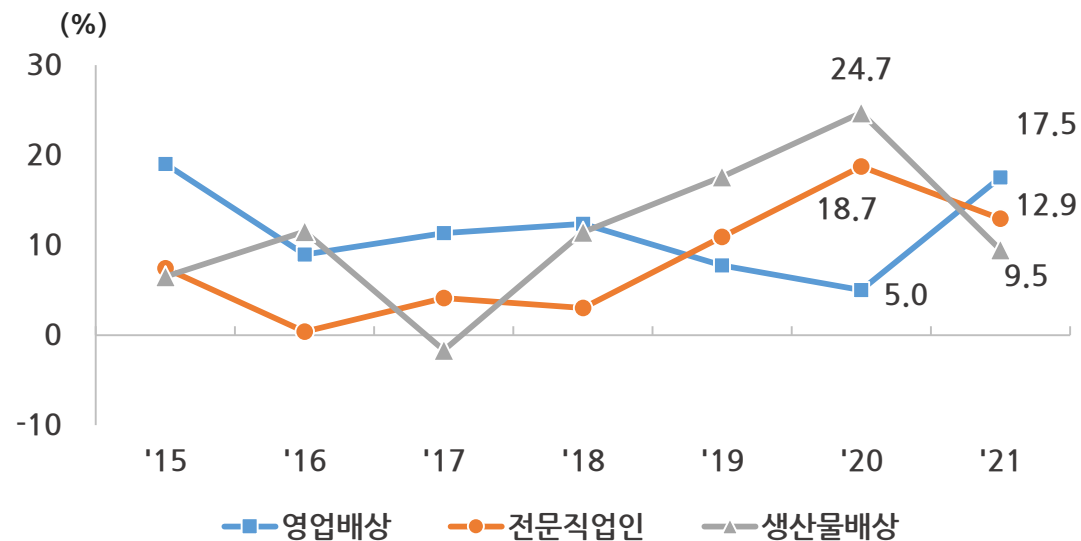
-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인 영업배상, 전문직업인 배상, 생산물배상 모두 높은 성장세를 지속
 - 2021년 영업배상, 전문직업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 모두 전년 대비 9% 넘는 고성장을 유지
 - 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014년에 비해 약 두 배 규모로 성장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배상책임보험 주요 종목별 성장률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3.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2)

- 디지털화와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규 보장영역 등장, 배상책임 법률 강화 추세,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의료인·기업임원 등의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 확대
- 경제성장과 함께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배상책임 영역도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도 주목할 필요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요인

- ✓ 사회 환경의 디지털화
- ✓ 안전 및 재난 사고 증가 및 보장 수요 확대
- ✓ 배상책임 법률 강화 추세
- ✓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환경변화



- ✓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
- ✓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료인, 기업 임원)의 가입 확대
- ✓ 전기충전소, 자율주행 로봇, 드론 관련 배상책임보험 상품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이

- 환경배상책임보험 의무화(2016년 7월)
-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2017년 1월)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화(2019년 3월 개정)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2020년 1월)
- 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2021년 6월)
-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의무화(2022년 7월)

Ⅲ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1. 2023년 보험료 전망 개요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수입(원수)보험료

3.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전망

4. 보험산업 위험보험료 전망

5. 보험료 전망 요약

1. 2023년 보험료 전망 개요(1)

2023년 보험산업,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경기둔화 본격화에 따른 저성장 전망

- 인플레이션 단기 해소 어려움으로 금리 및 주식시장 변동성 지속 전망
-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제도하에서 단기 성장전략은 실행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경기둔화

- ✓ 민간소비 성장 둔화
- ✓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기업투자 위축
- ✓ 가계 부채부담 확대



보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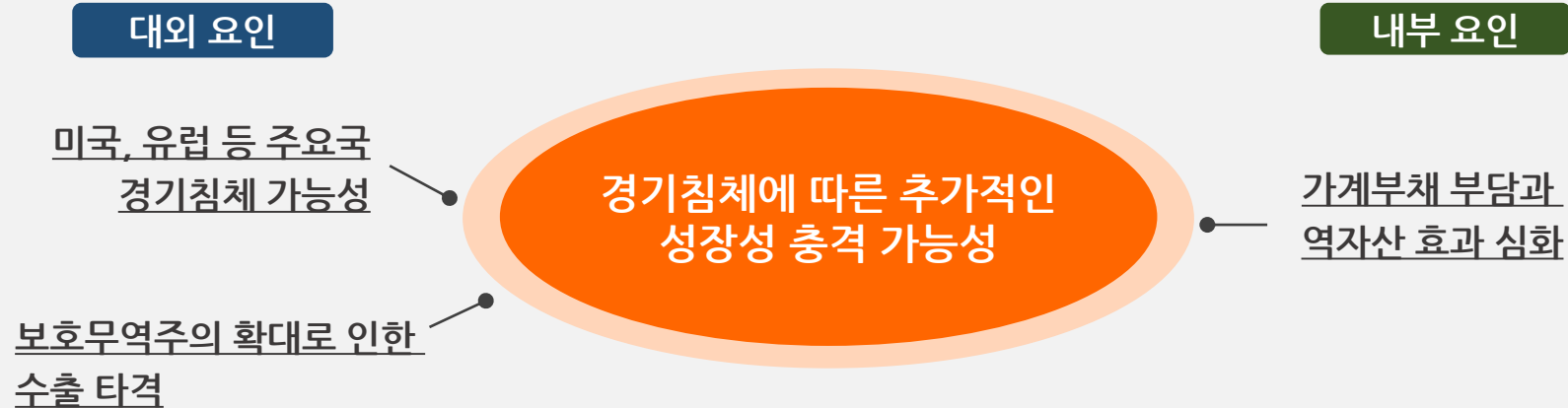
- ✓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수요 둔화
- ✓ 기업성 보험 성장 제한
- ✓ 저축 및 투자형 보험 부진
- ✓ 해지 확대 가능성

-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저축 및 투자형 보험 부진, 민간소비 둔화에 따른 보장성보험 위축으로 성장여력 제한적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성장성 둔화가 예상되나 생명보험에 비해 양호한 성장 예상

1. 2023년 보험료 전망 개요(2)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보험산업 성장성 충격 불가피

- 2023년 경제성장률 2%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산업 성장성을 전망하였으나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
-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규모 감소 가능성
-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확대,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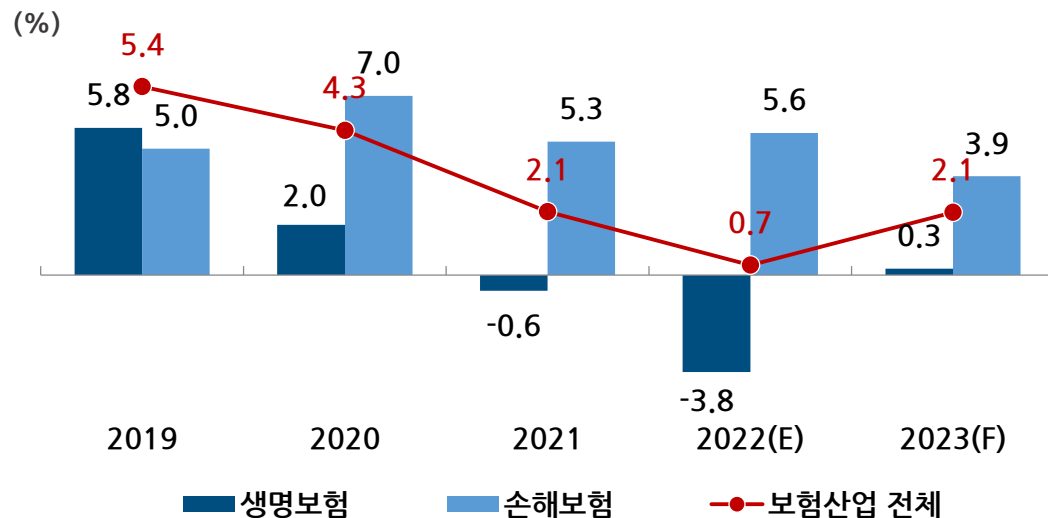


- 2023년 보험산업 성장성 전망은 보수적인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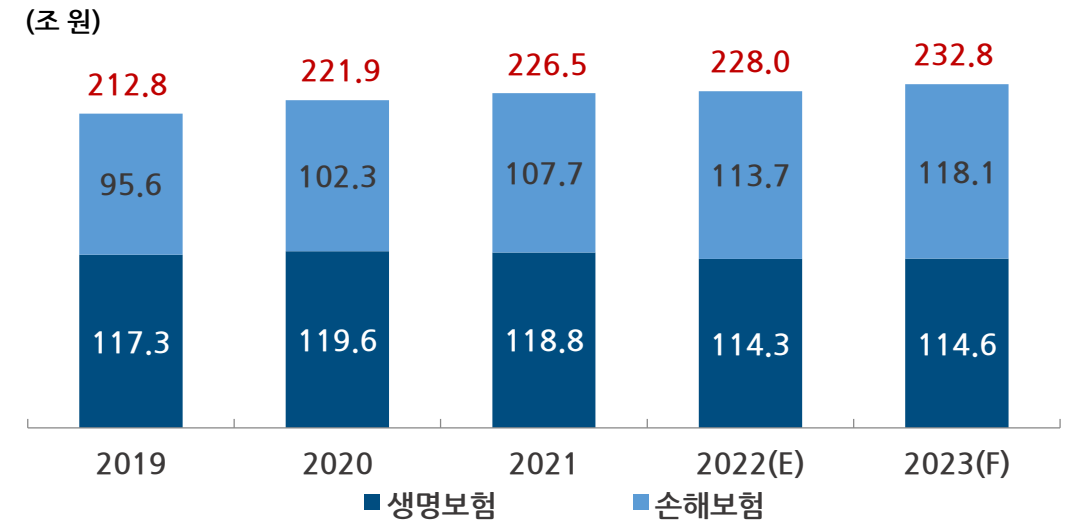
2.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수입(원수)보험료

- 2023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3.8%, 2023년 0.3%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2년 5.6% 에서 2023년 3.9%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2023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232.8조 원 수준으로 전망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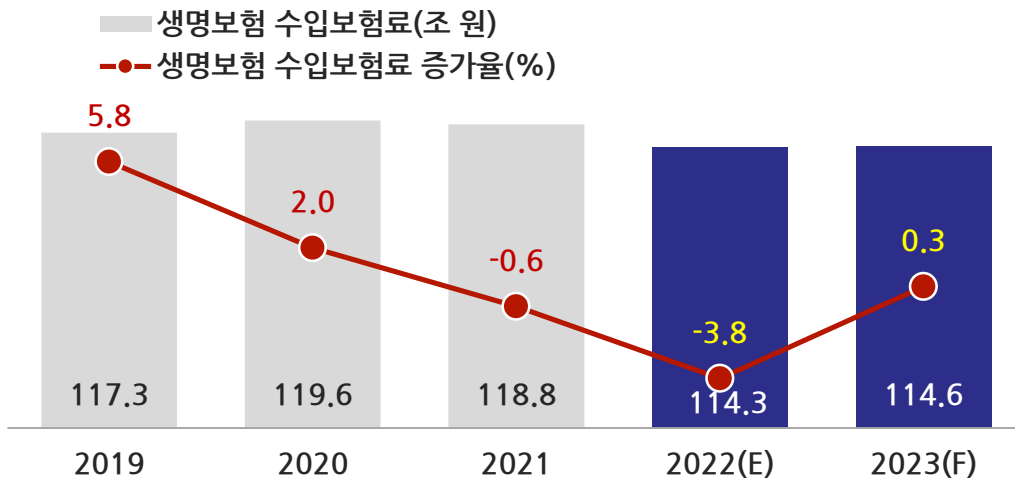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 규모 전망



2-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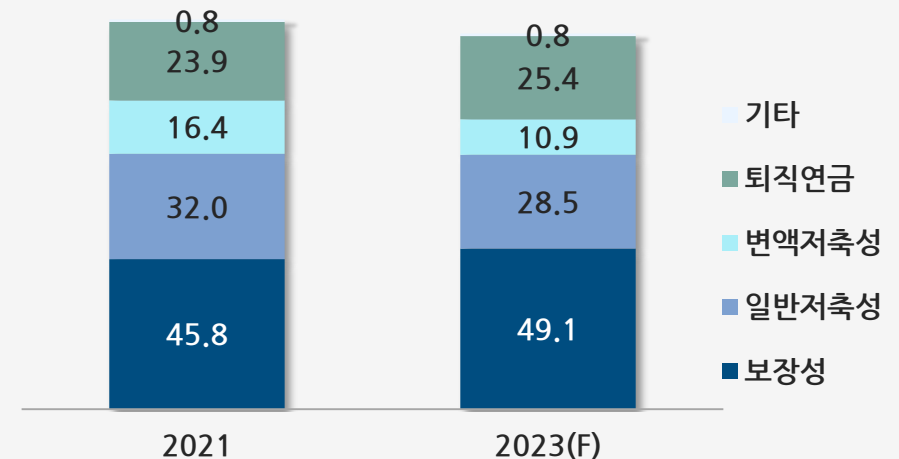
- 2023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건강보험 성장에도 저축보험 및 투자형 상품 부진 등으로 0.3% 증가에 그칠 전망
 -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수요 축소에도 불구하고 갱신 보험료 중심으로 성장 전망
 - 일반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저축보험 실적 둔화로 감소할 전망
 -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신규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감소할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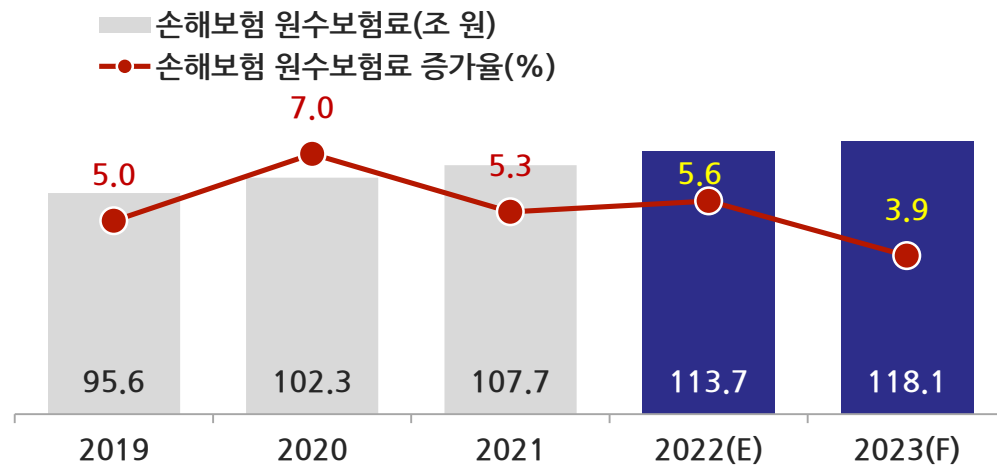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2-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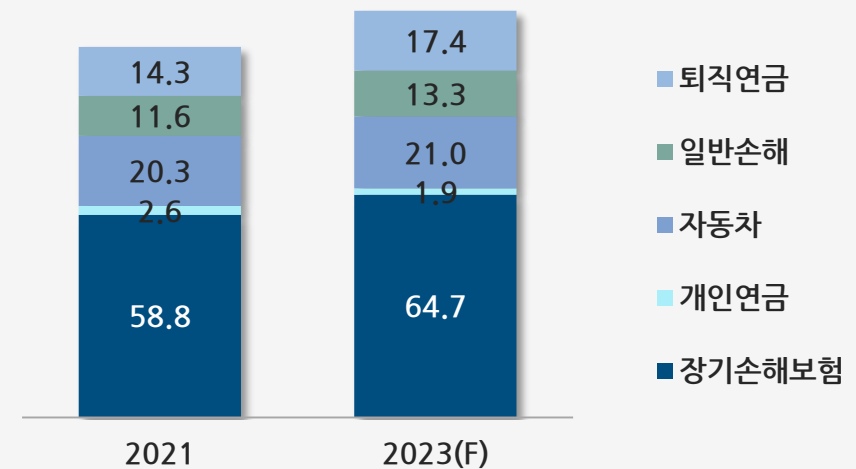
- 2023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및 일반손해보험 증가로 3.9% 성장 전망
 - 장기보험은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보험은 2022년 상반기 보험료 조정 효과와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낮은 성장세 예상
 -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세 유지 전망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전망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전망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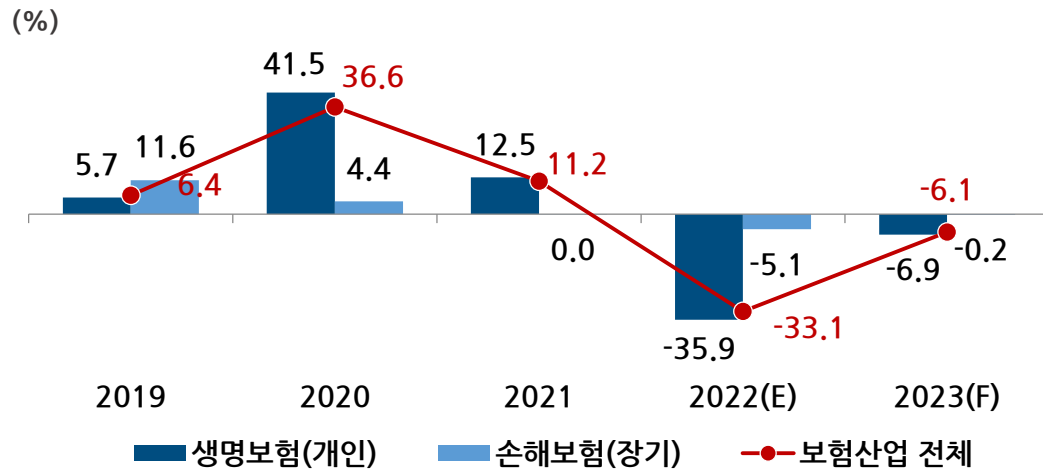


3.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전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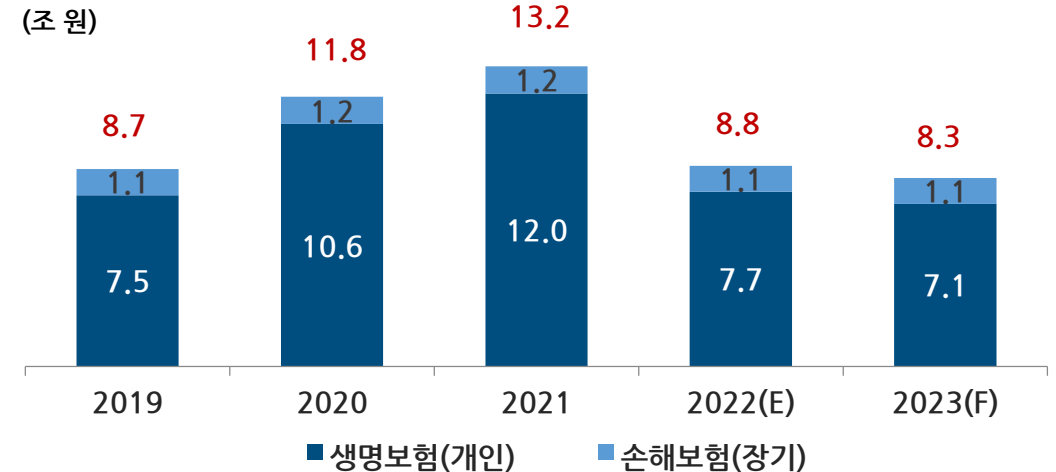
- 2023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는 6.1% 감소하여 2년 연속 역성장 전망
 -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2년 -35.9%, 2023년 -6.9% 전망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022년 -5.1%에서 2023년 -0.2% 전망
-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는 2022년 8.8조 원, 2023년 8.3조 원 수준으로 예상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는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기준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임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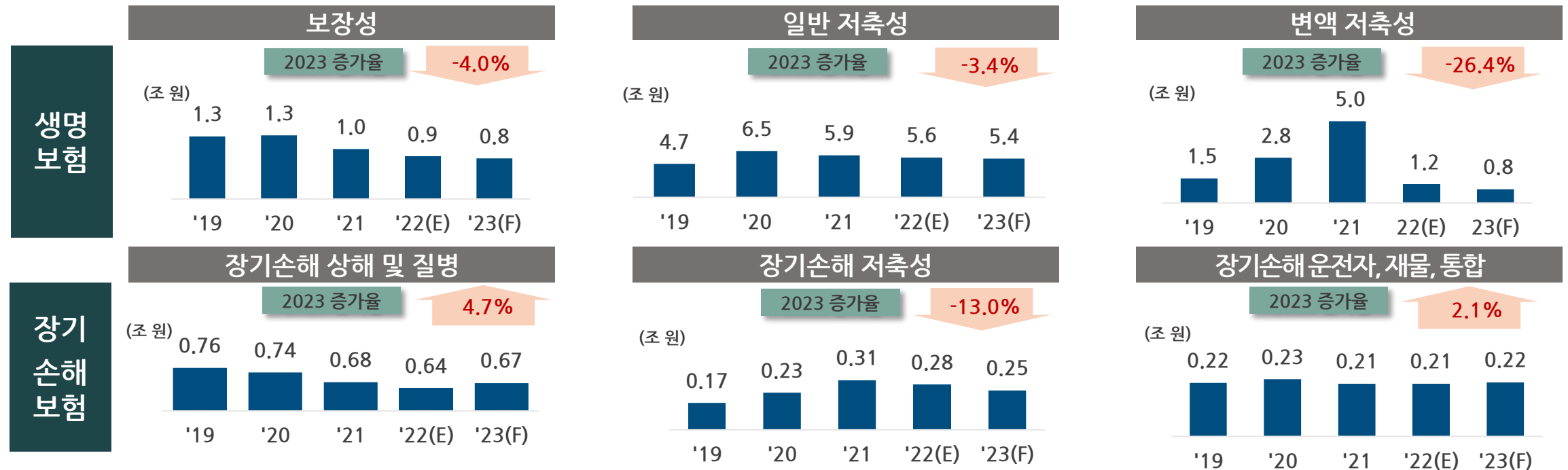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자료: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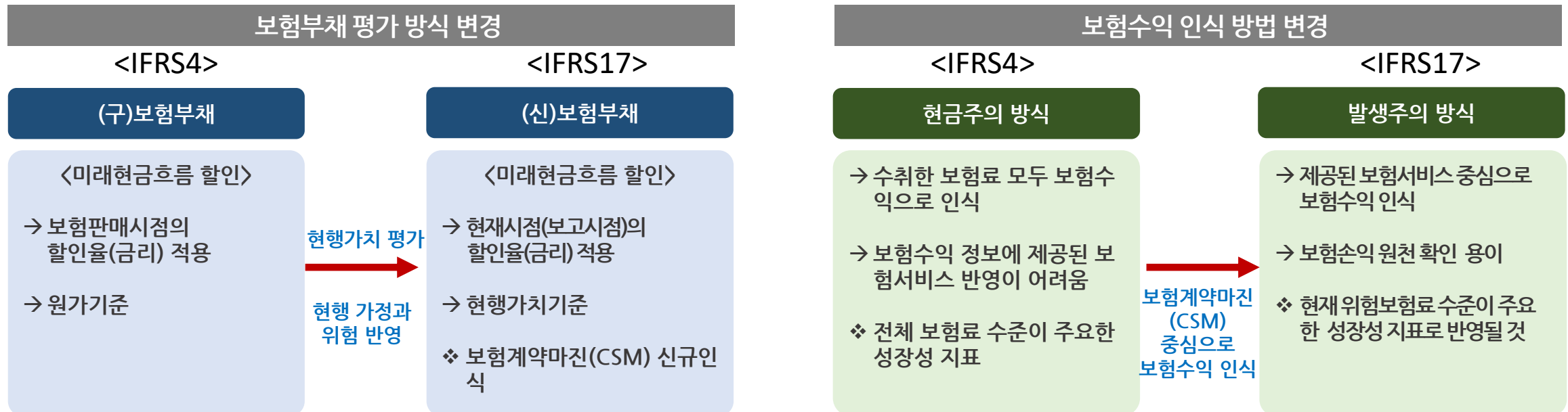
3.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전망(2)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신규 수요 부진으로 감소 전망
- 일반저축성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회복세가 나타나겠으나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 상실에 따른 초회보험료 감소로 전체적인 감소 전망
-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 예상
- 손해보험 장기인보험은 초회보험료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장기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또한 성장 예상



4. 보험산업 위험보험료 전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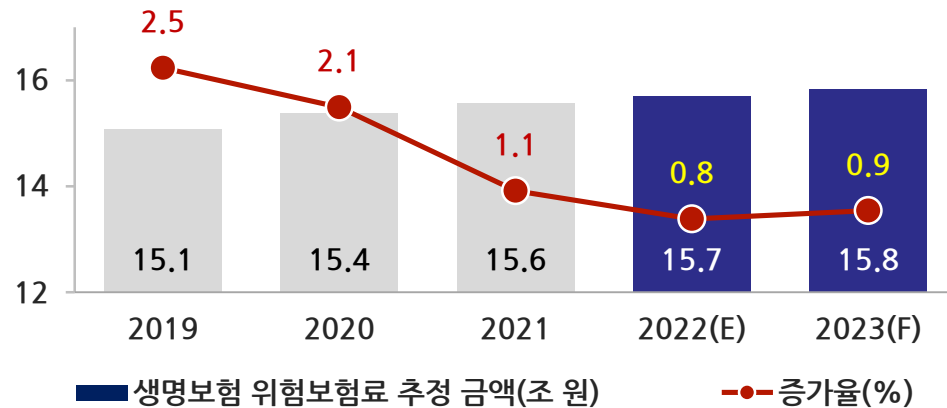
- 위험보험료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 예상
 - 2023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고,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이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변경
 - 위험보험료는 보험영업손익의 원천이 되는 지표로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보험료의 경우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장성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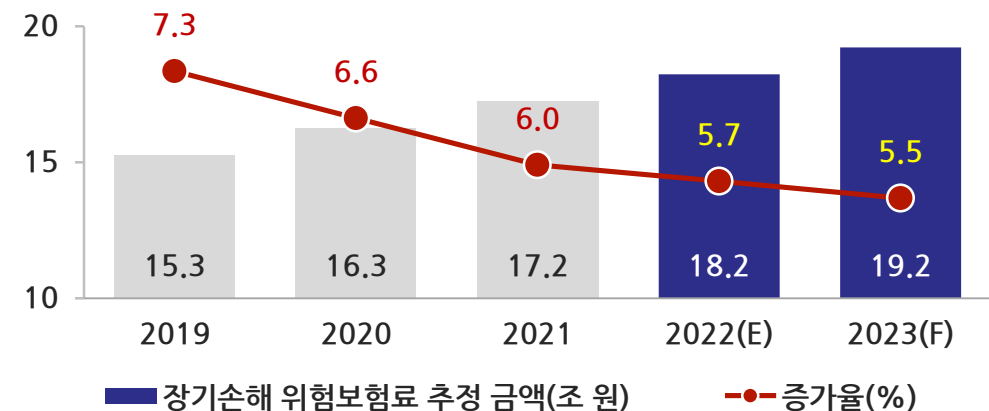
4. 보험산업 위험보험료 전망(2)

- 위험보험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둔화
 - 2021년 기준 생명보험산업 위험보험료는 수입보험료 규모의 약 13.1%,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의 29.3% 수준임
- 2023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수입(원수)보험료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2018년 이후 위험보험료 증가세는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추정 및 전망



5. 보험료 전망 요약

- 2023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는 모두 2014~2021년 기간 평균 성장세 하회
- 2014~2021년 기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위험보험료 평균성장세는 각각 1.0%, 3.1%로 저상장 지속
- 2023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감소세 지속 전망

보험료 성장률 변화(2014~2021 vs. 2022(E), 2023(F))

	수입(원수)보험료			위험보험료			초회보험료		
보험종류									
	'22(E)	'23(F)	'14~'21	'22(E)	'23(F)	'14~'21	'22(E)	'23(F)	'14~'21
생명보험	-3.8%	0.3%	1.0%	0.8%	0.9%	3.1%	-35.9%	-6.9%	-1.4%
손해보험	5.6%	3.9%	5.0%	5.7%	5.5%	7.7%	-5.1%	-0.2%	-10.0%

주: 1) 위험보험료와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 기준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기준임
 2) '14~'21은 연평균 성장률(CAGR)임

감사합니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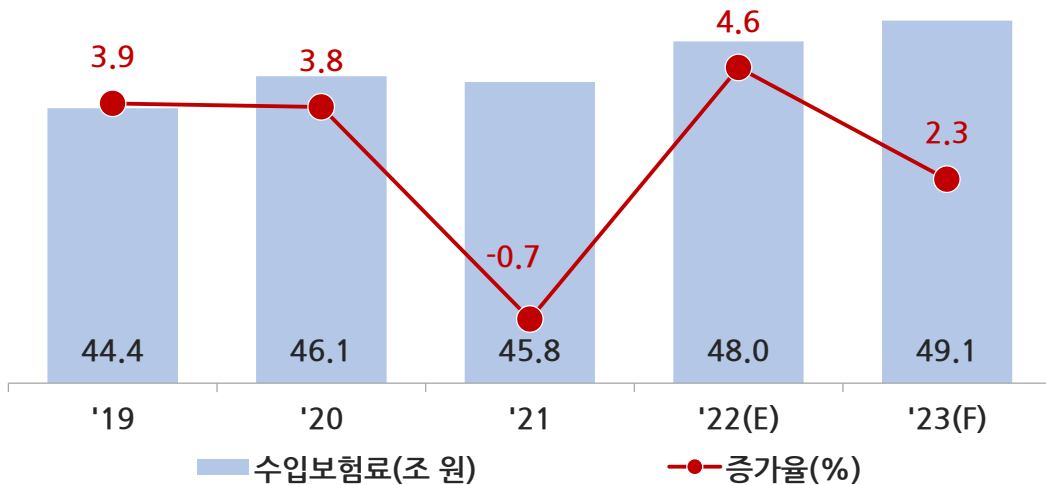
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3. 보험업권 퇴직연금

1-1. 생명보험: 보장성보험(변액보장성보험 포함)

-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종신보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질병·건강보험 중심으로 2.3% 성장할 전망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 설계사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은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
 - IFRS17, K-ICS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은 지속될 것
 -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관련된 보험상품의 개발 노력과 판매 확대가 예상됨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 제도변화 대비 적극적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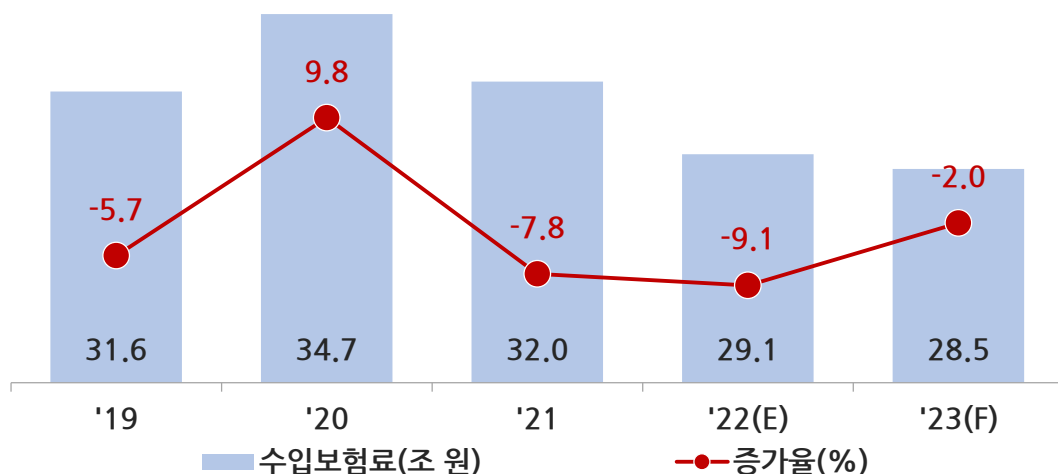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종신보험 신상품 개발 위축
- 경기둔화 우려 및 소비심리 위축
-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 건강보험시장 업권 간 경쟁 확대

1-2.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 일반저축성보험은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 경쟁력 약화 등으로 2.0% 감소 전망
 -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상승과 은퇴인구 증가 등으로 신규수요 회복 전망
 - 저축보험은 예·적금 금리 인상에 따른 상대적 금리경쟁력 약화로 수입보험료 감소 예상
 - 자산규모 확대를 위한 일부 회사의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가 나타날 가능성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공시이율 상승에 따른 연금보험 수요 증가
- 일부 회사의 전략적 고금리 상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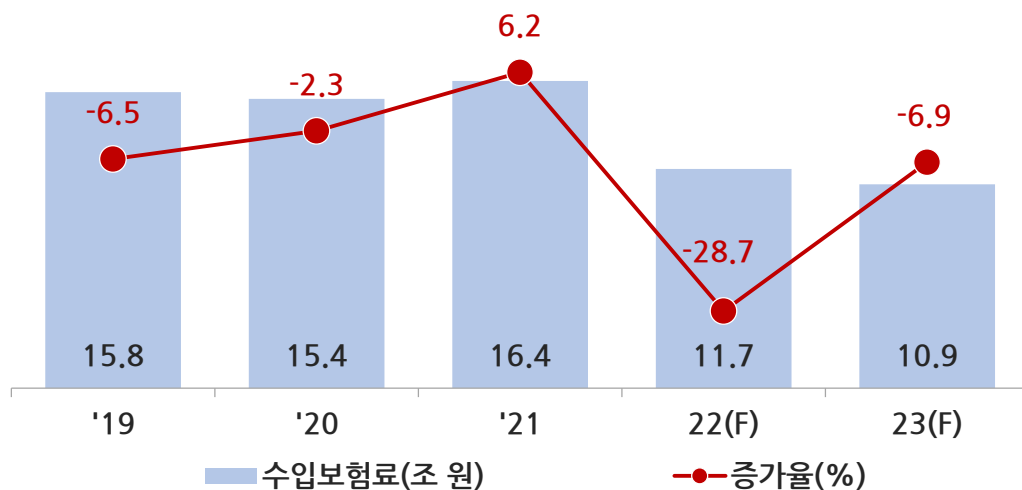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저축보험의 상대적 금리 경쟁력 약화
- IRP 등 투자형 상품과 경쟁 심화
- IFRS17, K-ICS 대비 보장성보험 강화

1-3. 생명보험: 변액저축성보험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6.9% 감소 전망
 -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확대에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신규판매 둔화 예상
 -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해지로 기존 계약의 이탈이 확대될 가능성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투자형 상품에 대한 인식 개선
- 연금 수요 확대에 따른 변액연금 관심 증가

▼ 감소요인

-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둔화 우려 증가
- 타업권 투자형 상품과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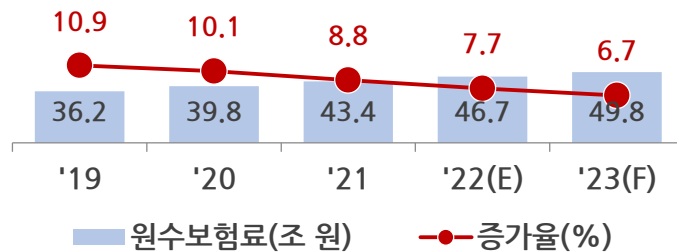
2-1. 손해보험: 장기 보장성보험

· 장기 상해·질병보험은 6.7% 성장, 운전자·재물 등 기타 보장성보험은 1.7% 증가 전망

- 상해·질병보험은 건강보장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갱신보험료 유입 등으로 성장세 유지 전망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성장 전망, 반면 재물보험과 통합형 보험은 부진 지속 예상

1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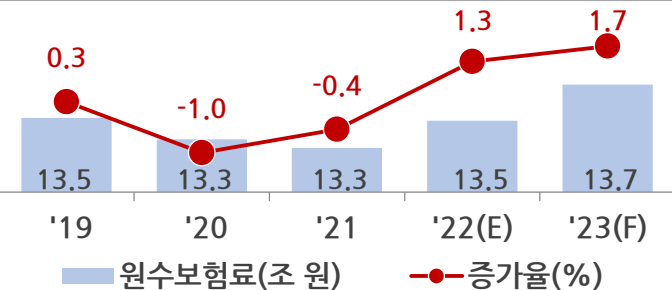


▲ 증가요인

▼ 감소요인

- 건강보장(어린이 포함) 수요 확대
-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 우려
- 간편심사보험 확대
- 갱신보험료 증가

2 운전자·재물·통합



-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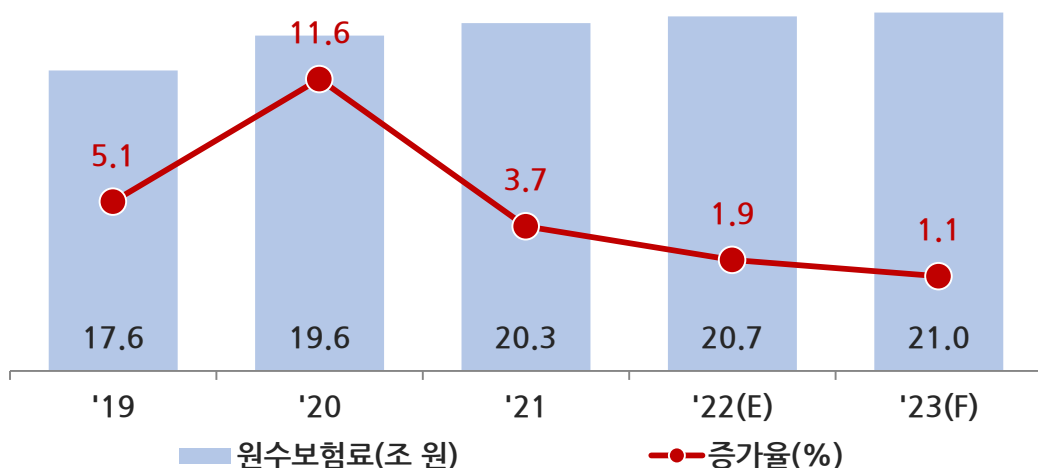
-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2-2.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조정,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둔화,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1.1% 성장에 그칠 전망

-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료 조정 효과가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임
-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확대 어려움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가입 확대, 운행거리 연동 보험 증가 등으로 대당 보험료 증가 제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고가(수입차 포함) 차량 증가
- 신차 가격 상승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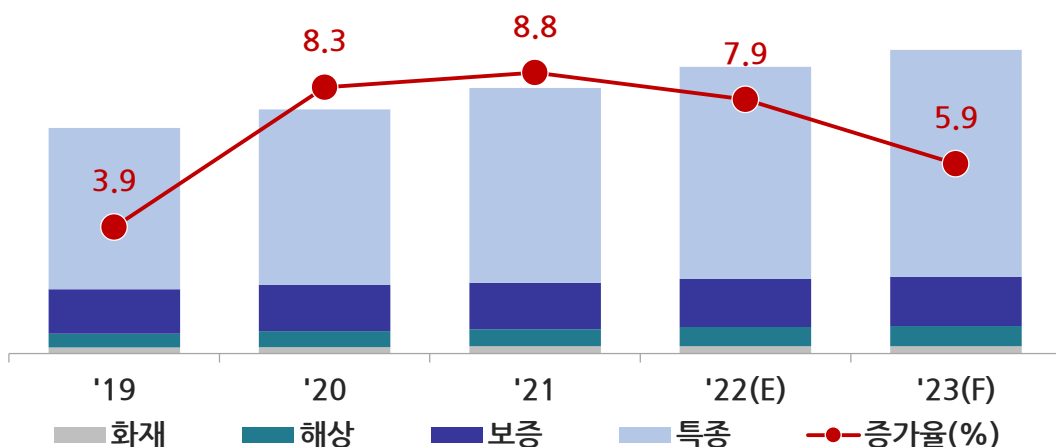
- 2022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 효과 지속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둔화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 운행거리 연동 보험상품 확대
-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2-3. 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5.9% 성장 전망

- 화재보험은 일반 및 공장 화재보험 수요 확대 등으로 1.2% 증가 예상
- 해상보험은 선박수주 증가, 수출입 물동량 확대 등으로 3.9% 증가 전망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완만한 회복과 신용 관련 보증 수요 확대 등으로 2.5% 성장 전망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 종합보험과 기타 특종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 7.1% 성장 예상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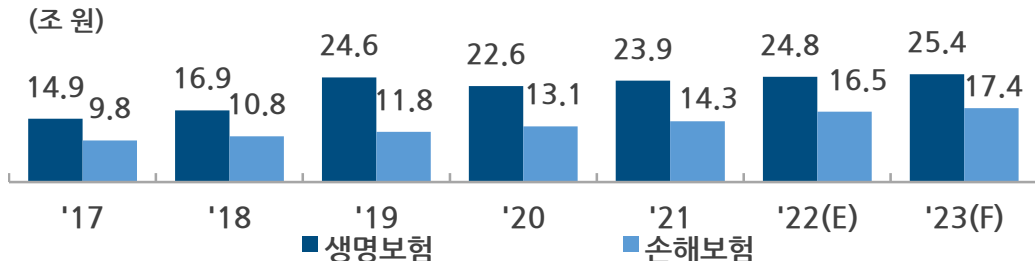
구분	'19	'20	'21	'22(E)	'23(F)
화재	-1.2	1.6	15.3	0.5	1.2
해상	0.8	17.4	5.6	13.5	3.9
보증	-1.0	5.0	0.0	3.5	2.5
특종	5.9	8.7	11.1	8.8	7.1

3. 보험업권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2.4%, 손해보험 5.0% 증가 전망

- 생명보험은 건전성 규제로 인한 자본부담 확대와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낮은 성장세 예상
- 손해보험은 일부 회사들의 시장 재진출로 소폭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IRP 시장 확대 추세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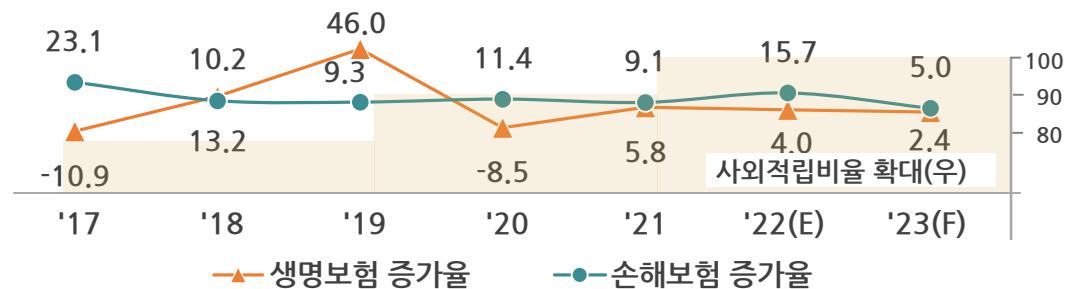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IRP 시장 확대 지속
-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확대
- 일부 회사들의 시장 재진출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수입보험료 증가율



▼ 감소요인

- 타금융업권과의 경쟁 심화
- 건전성 규제로 인한 자본부담 확대

[참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E)		202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9.6	2.0	118.8	-0.6	114.3	-3.8	114.6	0.3
보장성보험	46.1	3.8	45.8	-0.7	48.0	4.6	49.1	2.3
저축성보험	50.1	5.8	48.4	-3.5	40.8	-15.7	39.4	-3.4
일반저축성보험	34.7	9.8	32.0	-7.8	29.1	-9.1	28.5	-2.0
변액저축성보험	15.4	-2.3	16.4	6.2	11.7	-28.7	10.9	-6.9
기타(일반단체)	0.7	-2.1	0.8	1.1	0.8	1.0	0.8	1.5
퇴직연금	22.6	-8.5	23.9	5.8	24.8	4.0	25.4	2.4
퇴직연금 제외	97.0	4.8	95.0	-2.1	89.5	-5.8	89.2	-0.3

[참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E)		202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102.3	7.0	107.7	5.3	113.7	5.6	118.1	3.9
장기손해보험	55.9	5.3	58.8	5.2	61.7	4.9	64.7	4.8
상해 및 질병	39.8	10.1	43.4	8.8	46.7	7.7	49.8	6.7
저축성	2.8	-20.0	2.2	-20.1	1.6	-28.0	1.2	-26.0
운전자·재물 등	13.3	-1.0	13.3	-0.4	13.5	1.3	13.7	1.7
개인연금	3.0	-9.1	2.6	-13.3	2.2	-16.3	1.9	-13.9
자동차보험	19.6	11.6	20.3	3.7	20.7	1.9	21.0	1.1
일반손해보험	10.7	8.3	11.6	8.8	12.5	7.9	13.3	5.9
퇴직연금	13.1	11.4	14.3	9.1	16.5	15.7	17.4	5.0
퇴직연금 제외	89.2	6.4	93.4	4.7	97.2	4.0	100.8	3.7